

한국어 대등적 연결어미 '-고'의 함축 의미와 운율*

The Implicational Meaning and Prosody of Conjunctive Marker '-ko' in Korean

김 미 란**
Mi-Ran Kim

ABSTRACT

The conjunctive marker '-ko' in Korean can be interpreted as meaning either conjunctive '*and*' or ordering '*and then*'. The interpretation of '-ko' is ambiguous in written texts but not in spoken texts. It is because the meaning of the utterance is determined by the combination of the text with its prosody.

The two meanings of '-ko' can be explained by the theory of implicature, which was introduced by Grice (1973, 1981). This paper examines the meaning of the marker '-ko' with respect to the relation between its meaning and prosody.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s in this paper showed that the prosodic phrasing in Korean influences the interpretation of the marker '-ko'. When two constituents combined by '-ko' are realized in the same accentual phrase, the marker can be interpreted as meaning '*exactly be orderly*'. This meaning can be classified as the Particularized Conversational Implicature (PCI) in Gricean theory. In the other cases of phrasing, the marker '-ko' can mean either '*conjunctive*' or '*be orderly*' by the Generalized Conversational Implicature (GCI).

The fact that phrasing determines the interpretations of the marker '-ko' can be seen as supporting the view that prosody interacts with various levels of linguistic phenomena from phonology to pragmatics.

Keywords: Conjunctive Marker, Accentual Phrase, Gricean Maxim, Generalized Conversational Implicature, Particularized Conversational Implicature

1. 서 론

언어 표현에서 연결 관계를 나타내는 'and'는 두 가지 의미 해석이 가능하다. 한 가지는 연결 의미이고 다른 한 가지는 순서의 의미이다. 이러한 연결형의 의미 차이는 한국어 연결어미 '-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예문 (1)은 순서와 관계없이 두 행위를 나열하는 연결 의미와 순서적인 의미를 보여 주고 있다.

* 항상 조언과 격려로 많은 도움을 주시는 고려대학교 김기호 선생님과 최재용 선생님, 그리고 논문 심사와 함께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주신 두 심사위원께 감사드립니다.

** 고려대학교 언어과학과

- (1) a. 밥 먹고 책 읽었어.
 b. 책 읽고 밥 먹었어.
 (2) a. 밥 먹고 나서 책 읽었어.
 b. 책 읽고 나서 밥 먹었어.

예문 (1a)와 (1b)는 '오늘 무엇을 했니?'라는 질문에 대해 같은 의미의 답이 될 수 있다. 즉, 오늘 한 일은 '책을 읽다'와 '밥을 먹다'라는 두 가지였고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는 데 두 문장은 의미 차이가 없다. 이 경우가 '-고'의 연결 의미적 해석이다. 그런데 (1)의 문장은 (2)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1)의 문장이 하나의 음운구로 발화되면 (1a) 문장은 (2a)로 읽히고, (1b)는 (2b)로 해석된다. 이때 (1a)와 (1b)는 서로 다른 의미가 된다. 다시 말해서 '밥먹고 책 읽었어'라는 문장은 '밥먹고 나서 책 읽었어'라는 의미가 되어 '책을 읽고 나서 밥 먹었다'라는 문장과는 다른 상황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고'의 중의성 문제가 생긴다.

의미론에서는 일반적으로 '-고'의 중의성을 인정하고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연결의 '-고'와 순서의 '-고'가 존재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중의성은 맥락에 의해 해결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음성 언어에서는 맥락이 주어지지 않아도 음운구 형성이 어떻게 다른가에 따라 의미가 구별된다. 즉, 예문 (1)이 하나의 음운구로 실현되면 예문 (2)로 분명하게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문자 언어와 음성 언어가 의미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것은 '-고'의 중의성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게 한다. 즉, '-고'가 가지는 의미가 'and'¹⁾와 'and then'이라는 서로 다른 의미인지, 아니면 운율이 'and'로부터 'and then'을 해석하도록 의미를 부가하는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and'와 'and then'의 의미를 다르게 보지 않으려는 것은 화용론에서 다루는 의미 분석과도 일치하는 면이 있다. Grice(1973,1981)가 제시한 대화 협조의 원리 중 '태도의 격률(Maxim of Manner)'은 'and'의 두 가지 의미를 함축 관계를 통해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즉, 'and then'은 'and'로부터 함축을 통해 나타나는 의미라고 설명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함축 이론은 '-고'가 발화 상에서 나타나는 다른 정보를 활용한다고 예측하게 한다. 즉, 운율이 함축의 의미를 전달한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설명에 기반하여 '-고'가 전달하는 두 가지 의미를 함축과 운율의 관계에서 다루도록 한다. 그리고 음성 실험을 통해 어떠한 운율 특징이 '-고'의 의미를 변별하게 되는지 살펴보겠다.

2. 본 론

'-고'에 대한 의미 해석 차이는 특히 동작 동사를 연결하는 경우 중요하다. 두 동작이 나열되는 경우와 시간적 연속을 의미하는 경우가 발화상에서 다른 의미를 전달하게 되기 때문이다. '-고'가 연결의 의미로부터 순서적인 의미로 해석되는 것은 Grice(1973,1981)의 함축 이론을 통해 잘 설명해 줄 수 있다. 이 장에서는 Grice(1973,1981)에 기반하여 '-고'의 의미 차

1) 'and'를 언급할 때 단어와 의미를 구별하기 위해 의미 표시는 이탤릭체로 함.

이와 함축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고'와 관련되는 함축이 운용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확인해 본다.

2.1 한국어 연결어미 '-고'의 해석과 Grice(1973,1981)의 대화 격률(Gricean Maxims)

Grice(1973,1981)는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의 의도를 파악하고 의미를 해석하게 되는가에 관심을 두었다. 그는 화자와 청자가 의사소통하는 데에는 일정한 원리가 존재한다고 보고, 이를 협조의 원리(the Cooperative Principle)라고 규정하였다. 즉,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서로 협조를 원리로 대화에 임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서로 문장에서 말해진 것을 화자가 의도한 대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도를 발화에 전달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Grice는 대화 협조의 원리를 지키기 위한 몇 가지 대화 격률을 제시하였다. 대화 격률에는 '양의 격률(Quantity Maxim): 필요한 만큼 제보적으로', '질의 격률(Quality Maxim): 근거가 없는 것을 말하지 말라', '태도의 격률(Manner Maxim): 중의적이지 않게, 순서대로 말하라' 등이 있다. 그 중 '양의 격률'과 '태도의 격률'은 '-고'의 의미 차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태도의 격률은 '중의적이지 않게 말하라', '순서대로 말하라'라는 원칙이다. 따라서 '-고'로 연결되는 두 가지 행동은 순서를 지키면서 발화하는 것이 대화의 원리에 맞다. 이러한 격률 준수가 '-고'의 순서적 의미를 설명해 줄 수 있다. 따라서 '-고'는 어휘적으로는 연결 의미를 갖고, 문장이나 대화에서 순서를 지켜 표현되기 때문에 먼저 나열되는 것이 순서적으로 선행할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다음과 같은 예문(3)을 보자.

- (3) a. The man jumped on his horse and rode into the sunset.²⁾
 b. ??The man rode into the sunset and jumped on his horse.

예문 (3a)는 '말에 올라타고 석양으로 달려갔다'라는 해석으로 자연스러운 문장이다. 그런데 예문 (3b)번처럼 순서가 바뀌면 의미적으로 어색하다. 이러한 의미적 비문은 Grice가 말한 '순서대로 말하라'는 태도 격률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여기서 예문 (3b)는 우리가 세상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과 관련되기 때문에 어색해졌다는 설명도 가능하다. 그러나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항상 순서를 해석하게 하는 것은 아니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순서가 정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맥락만으로는 화자의 의도를 분명하게 이해하기 어렵다. 다음 예문 (4)를 보자.

- (4) A: 의사가 뭐라고 지시했니?
 B: 약 먹고 물 마시지 말래.

예문 (4)에서 B가 말한 의미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우선, '약 먹으라는 것'과 '물 마시지 말라는 것' 두 가지를 의사가 지시했다는 의미와 '약 먹은 후에는 물을 마시지 말라'는

2) Levinson(1983)의 예문을 활용함. 원래의 예문은 다음 (a)와 같다.

(a) ?? The lone ranger rode into the sunset and jumped on his horse.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 차이는 B가 문장을 어떻게 발화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만일 B가 '-고'에서 음운구 형성이 나뉘어진다면 다음과 같은 대화가 이어질 수 있다.

(5) A: 물을 마시지 말래?

B: 아니, 약 먹고 물 마시지 말래.

(5)에서 A가 질문을 하게 된 것은 B1 문장을 연결의 의미로만 해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5B)는 (4B)와 다른 운율로 발화될 것이다.

이와 같이 '-고'의 의미 차이는 화자가 의도하는 바를 운율과 어떻게 연결시켜 발화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다음 절에서는 '-고'에 대한 의미 차이를 함축과 운율의 관계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한다.

2.2 함축과 운율

연결 어미 '-고'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 분명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선 논의에서는 '-고'를 'and'와 'and then'의 의미로만 구분하였다. 그런데 발화상에서는 태도의 격률을 지켜서 순서대로 말한다는 것 외에도 함축되는 의미가 있다. 다음 예문 (6)에서는 '-고'가 순서대로 해석되는 것 이외에 부가되는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6) a. 손 씻고 밥 먹어라.

b. [손 씻고]_{AP} [밥 먹어라]_{AP}

c. [손 씻고 밥 먹어라]_{AP}

(7) a. 밥 먹고 손 씻어라.

b. [밥 먹고]_{AP} [손 씻어라]_{AP}

c. [밥 먹고 손 씻어라]_{AP}

(6a) 예문은 음운구 형성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만일 (6b)와 같이 두 개의 음운구로 형성된다면 순서적으로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6c)처럼 하나의 음운구로 형성되면 말한 사람이 '손 씻기'와 '밥 먹기'가 순서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이외에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부가된다. (7)번 예문에서도 이러한 함축이 드러나는 것은 동일하다. 즉, (7a) 문장이 하나의 음운구를 형성하여 (7b)처럼 발화되는 경우와 (7c)와 같이 두 개의 음운구를 형성할 때는 함축되는 의미가 달라진다. 그래서 (7c)의 경우는 말하는 사람이 '꼭 그 순서대로' 일이 진행되기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이와 같이 '순서적으로'라는 함축의미 외에 부가되는 의미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 차이에 대해서 Grice(1973,1981)는 대화함축을 일반함축(Generalized Conversational Implicature: GCI)과 특정함축(Particualarized Conversational Implicature: PCI)으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 (8) '일반함축은 대화 협조의 원리에 따라 격률을 지킴으로써 추론되는 것이며 특정함축은 맥락과 상황에 따라 추론되는 함축이다' (Levinson 1983에서 재인용)

Grice가 분류한 일반함축과 특정함축은 '-고'의 의미 해석을 구분할 수 있게 해준다. 앞서 살펴보았던 예문 (7b)와 (8b)는 일반함축으로 해석할 수 있고, (7c)와 (8c)는 특정함축으로 구별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연결 의미를 갖는 '-고'가 갖는 순서 의미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즉, 대화상에서 화자와 청자는 태도의 격률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동작이 일어난 순서대로 발화하여 먼저 발화되는 것이 먼저 일어난 동작임을 전달한다. 이렇게 해석되는 순서 의미는 일반함축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꼭 그 순서대로'라는 의미는 운율을 다르게 함으로써 구별되고 이 때의 함축은 순서 의미가 강조되는 특정함축이다.

그러면 이러한 일반 함축과 특정함축이 어떻게 운율적으로 차이를 보이는가에 대해 살펴보자. 예를 들어, 앞의 예문 (6)에서 '밥 먹고 손 씻어라'라는 문장은 발화된 것이 아니더라도 문장 자체에서 순서적인 의미를 일반 함축할 수 있다. 이때에는 음절 수에 따라 액음운구를 형성하게 된다. 전선아(1993)에 의하면 한국어 음운구 형성에서 일반적인 액센트구 형성은 서울 방언의 경우 'LHLH'를 기본 패턴으로 나타난다고 본다. 음절 수가 4 음절 미만일 경우에는 'L(HL)H'가 되어 중간에 'L'나 'H'가 생략될 수 있다. 하나의 액센트구에 대개 4-5 개의 음절이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예문 (6)은 '밥 먹고'와 '손 씻어라'가 각각 하나의 액센트구로 형성되리라고 예측할 수 있다. 여기에는 특별한 운율 특징이 개입되지 않는다. 그러나 '-고'의 의미가 반드시 그 순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특정함축을 가질 때에는 두 가지 동작이 하나의 의미 단위처럼 행동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가 액센트구 형성에도 반영될 수 있다. 즉, 하나의 액센트구 내에 있는 의미들은 서로 분리되는 액센트구보다 의미적으로 밀접함을 전달한다. 이러한 일반 함축과 특정함축의 의미 차이를 억양과 관련지어 보면 다음 (9)와 (10)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³⁾

- (9) 억양 1 (성조) [[L L H] [L H(또는 L) L (H)]]L%⁴⁾

(음절) [[σ σ σ]_{AP} [σ σ σ σ]_{AP}]_{IP}

- 억양 2 (성조) [L H (L L L) L (H)]]L%

(음절) [[σ σ σ σ σ σ]_{AP}]_{IP}

- (10) <억양 1>

+> '그 순서대로(*be orderly*)'

<억양 2>

+> '정확히 그 순서대로(*exactly be orderly*)'

(9)와 (10)은 억양과 '-고'의 의미 관계를 분명하게 보여 준다. 이러한 구분은 '-고'의 의미

3) 기호 '+>'는 함축을 나타낸다.

4) 하나의 억양구(Intonational Phrase)에서 마지막 액센트구에 나타나는 H 성조는 억양구의 경계성조(Boundary tone)에 얹혀서 실현되므로 실제로는 액센트구의 H 성조가 아니라 경계 성조가 나타나게 된다. '%'는 경계 성조를 표시한다.

를 발화에서 나타나는 운율과 관련하여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구체적인 맥락과 함께 이러한 구분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 다음 (11)을 통해 확인해 보자.

(11) a. < 맥락 1 > (철수가 손을 씻으려 하고 있다)

(엄마) : 밥 먹고 손 씻어라

운율: 억양 2

+> GCI: 그 순서대로 하라(*be orderly*)

+> PCI: 꼭 그 순서대로 해야 한다(*exactly be orderly*): (왜냐 하면, 지금 물이 안 나온다. 밥 먹고 난 후쯤에는 물이 나올 것이다)

b. < 맥락 2 > (철수가 손을 씻고 있다)

(엄마) : 손 씻고 밥 먹어라'

운율: 억양1

+> GCI : 그 순서대로 하라(*be orderly*)

운율: 억양 2

+> GCI : 그 순서대로 하라(*be orderly*)

+> PCI : 꼭 그 순서대로 해야 한다(*exactly be orderly*): (철수는 손을 씻는 척만 하고 안 씻는 것이 보통이므로 손을 씻어야만 밥을 먹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발화에서 '태도의 격률'은 일반함축을 해석하게 하며, 운율이 특정 함축을 나타낼 때에는 '*be orderly*'가 강조되어 특정 함축을 해석하게 한다. 한국어의 경우 '-고'는 액센트구의 형성에 따라 특정함축을 전달한다. 이와 같이 '*and*'와 '*and then*'의 의미를 구별하는데 운율이 개입하는 것은 한국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영어에서도 '*and*'의 해석이 운율과 관련되어 나타난다. 다음 예문 (12)를 살펴보자.

(12) George ate chicken soup and got sick. (Pierrehumbert & Hirschberg 1990)

이 예문은 '*and*' 앞에 나타나는 구성조(*phrase tone*)에 따라 두 가지로 해석된다. 먼저 구성조가 'L-'로 실현되는 경우에는 동작이 그 순서대로 일어났음은 말해 주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그 순서대로 일어났음을 함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구성조가 'H-'로 실현되면 '*and*'의 의미 해석은 '앞의 행위에 바로 이어서', '그 순서대로'라는 특정 함축을 갖게 되어 의미적으로 '*and then*'과 같아진다. 한국어와 영어는 운율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운율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에는 차이가 있지만, 운율과 의미가 결합하는 관계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즉, '*and*'가 '*and then*'으로 해석되는 것은 태도의 격률을 지키면서 나타나는 일반 함축으로 설명할 수 있고, '*and then*'이 전달하는 '*be orderly*'의 의미는 운율로 특정 함축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어에서는 액센트구 형성이 특정 함축을 유도한다고 볼 수 있고, 영어에서는 구성조가 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자료에 대한 실험과 분석을 통해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을 확인해 보기로 한다.

3. 실험

실험은 연결어미 '-고'가 특정 함축을 가질 때 어떠한 운율 특징을 보이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고'의 일반 함축 의미는 맥락 정보가 없이도 자연스럽게 순서대로 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운율적인 특징 없이도 순서의 의미를 일반 함축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는 '-고 나서'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함축은 '반드시 그 순서대로' 행위가 이루어졌음을 함축하고, 이러한 특정 함축은 운율적인 차이로 나타난다. 이러한 특정 함축은 '-고'와 '-고 나서'에 동일하게 작용한다. 이러한 예측을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

3.1 실험 방법

실험은 서울방언 여성 화자 5 명을 대상으로 총 18 개의 발화를 3번씩 반복하였다. 녹음은 소음이 적은 조용한 연구실에서 Sony TCD-D100 DAT를 이용하였고 마이크는 SHURE condenser microphone(sm58)을 이용하였다. 분석은 PCquirer ver. 6.0을 이용하였다.

실험 문장은 대화의 형식으로 구성되었으며 실험자와 피험자가 역할을 맡아 발화하는 방법으로 녹음하였다. 또한 맥락을 줄 수 있는 문장을 포함시켜 별도의 설명 없이 피험자가 의미를 파악하도록 하였다. 실험 문장은 대화 유형마다 '-고'가 연결의 의미와 순서의 의미, 일반 함축과 특정 함축의 의미로 구별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하나의 대화문 세트에는 '-고'가 연결 의미로 주어지는 것과 순서의 의미로서 일반함축과 특정함축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포함되었다. 다음 (13), (14)는 실험에 사용된 대화와 분석된 예문이다.

(13) A: 결혼하고 요즘 어떻게 지내니?

B: **밥하고 아이보고 집안일 하다 보면 하루가 그냥 가요.**

(14) A1: 오늘은 날씨가 어땠니?

B1: 눈도 오고 비도 왔어요.

A2: 눈이 먼저 왔니, 비가 먼저 왔니?

B2: 눈이 오고 비가 왔어요.

(B3: 눈이 오고 나서 비가 왔어요.)

(13)번 예문의 응답에서는 '-고'가 나열의 의미를 갖는다. 예문 (14)에서 A1 질문은 특정 함축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응답은 '-고'가 나열의 의미를 가지면서 나타날 수도 있고, 순서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14)의 두 번째 질문에서는 순서를 명확하게 답해 줄 것을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응답에는 특정함축이 드러날 수 있어야 자연스러운 대화가 된다. (14)번에서 B3 예문은 순서의 의미를 명확하게 나타내는 '-고 나서' 표현을 넣은 문장이다. 이 예문은 특정 함축이 '-고 나서'에 나타날 때에는 '-고'가 갖는 특정 함축과 동일해지고 운율구 형성에서의 특징이 동일한지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구성으로 '-고'를 포함하는 응답과 '-고 나서'를 포함하는 응답을 넣어 총 18 개의 대화문을 만들었다. (14)번 예문 중 B1과 B2 비교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연결 형태가 '-고'이든 '-고 나서'이든 'exactly be orderly'라는

특정 함축을 내포할 때 운율이 동일하게 나타남을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분석 대상 문장은 다음과 같다.

표 1. 문장 번호는 맥락별로 번호가 매겨지고, 각 맥락에서 연결의 의미이거나 일반함축인 경우는 번호 다음에 'a', '-고' 형태가 특정함축을 가질 때는 'b', '-고 나서'에 특정 함축이 개입될 경우는 'c'로 표기되었다. 여기서 일반 함축의 의미는 'be orderly'가 되고, 특정 함축은 'exactly be orderly'가 된다.

	번호	예문	의미	함축
1	k1	밥하고 아이보고 집안일 하다 보면 하루가 그냥 가요.	conjunctive	-
2	k2	해가 나고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conjunctive or 'and then'	(GCI),(PCI)
3	k3	눈이 오고 나서 해가 나네요.	'and then'	(PCI)
4	k4a	눈도 오고 비도 왔어요.	conjunctive	-
5	k4b	눈이 오고 비가 왔어요.	'and then'	PCI
6	k4c	눈이 오고 나서 비가 왔어요.	'and then'	PCI
7	k5a	약 먹고 물먹어요.	conjunctive or 'and then'	GCI
8	k5b	약 먹고 물먹어요.	'and then'	PCI
9	k5c	약 먹고 나서 물먹어요.	'and then'	PCI
10	k6a	물 마시고 오이 먹었어요.	conjunctive or 'and then'	GCI
11	k6b	물 마시고 오이 먹었어요.	'and then'	PCI
12	k6c	물 마시고 나서 오이 먹었어요.	'and then'	PCI
13	k7a	인형 만들고 노래 배웠어요.	conjunctive or 'and then'	GCI
14	k7b	인형 만들고 노래 배웠어요.	'and then'	PCI
15	k7c	인형 만들고 나서 노래 배웠어요.	'and then'	PCI
16	k8a	미영이 만나고 마로니에 공원에 갔었어요.	conjunctive or 'and then'	GCI
17	k8b	미영이 만나고 마로니에 공원에 갔었어요.	'and then'	PCI
18	k8c	미영이 만나고 나서 마로니에 공원에 갔었어요.	'and then'	PCI

3.2 실험 결과 및 분석

실험을 통해 관찰해 보고자 한 것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로, '-고'가 연결의 의미일 때와 순서의 의미일 때 억양에 변화가 있는가, 두 번째는 'and then'이라는 의미가 일반 함축과 특정 함축일 때 차이를 보이는가, 세 번째는 특정 함축과 운율의 관계로서 '-고'가 특정 함축될 때와 '-고 나서'가 특정 함축될 때 운율구 형성이 동일하게 나타나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실험 결과는 운율구 형성을 중심으로 관찰해 본다.

3.2.1 'and', 'and then'의 의미와 운율구 형성

첫 번째 관찰은 실험 예문 중에서 '-고'가 연결 의미로만 해석될 수 있을 때와 일반 함축이나 특정 함축에 의해 'and then'으로 해석되는 경우이다. 실험 문장에서 k1은 연결 어미 '-

고'가 'and'로 해석되는 경우이다. 그리고 k2와 k4는 특정한 맥락이 개입되지 않는 한 연결 의미 '-고'로 해석되는 예문들이다. 녹음 후에는 화자와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발화한 문장의 의미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다. 이러한 인터뷰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에서 'and'의 의미 인지 'and then'의 의미인지를 설명하기로 한다. 우선 '-고'가 연결 의미일 때 운율구 형성을 보면 다음 [그림 1]-[그림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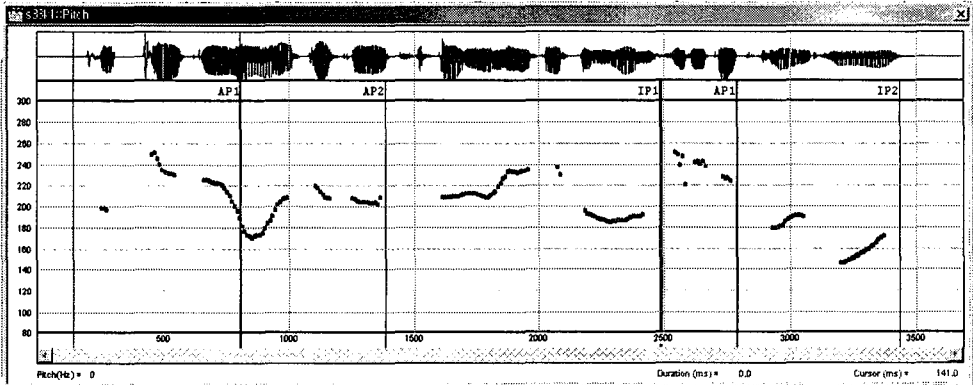


그림 1. k1: /밥하고 아이보고 집안일 하다 보면 하루가 그냥 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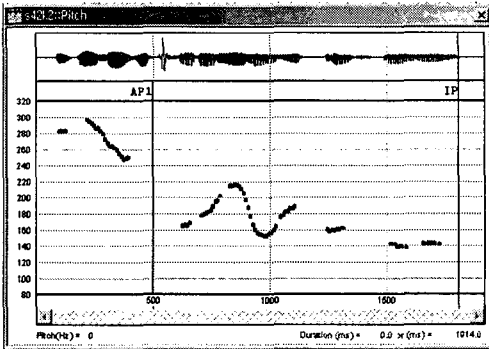


그림 2. k2: /해가 나고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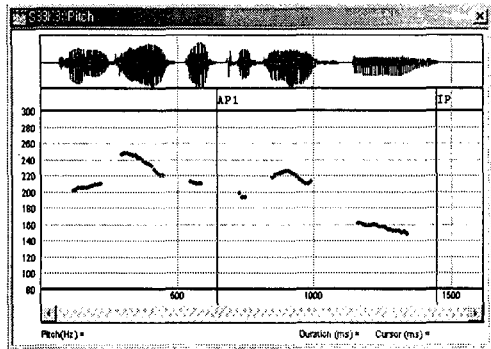


그림 3. k4a: /눈도 오고 비도 왔어요/

[그림 1]-[그림 3]은 모두 연결의 의미 '-고'가 나타내는 피치 곡선이다. 여기서 '-고' 부분은 액센트구가 나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액센트구는 서울 방언에서 나타나는 기본적인 성조 패턴(L(H)(L)H)을 중심으로 판단하였다. 예를 들어, /밥먹고/는 'LHH'가 하나의 액센트구를 형성하고 있으며, /아이보고/는 'L(H)HH'로 액센트구를 구별하였다. 예문번호 k1과 k2, k4a에 대한 액센트구 형성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 '-고'가 연결의미일 때 독립적인 액센트구 형성 비율

피험자수	문장수(k1,k2,k4a)	발화회수	총문장	'-고'에서 AP가 나뉘는 회수
5	3	3	45	40

이와 다르게 '-고'가 순서의 의미를 나타낼 때에는 운율구 형성이 두 가지 특징을 갖는다. 즉, '-고'를 중심으로 액센트구가 나뉘는 경우도 있고, 하나의 액센트구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15) A1: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B1: 약 먹고 물 먹어요.

A2: 너는 약 먹고 물 먹니 아니면 물먹고 약 먹니?

B2: 약 먹고 물 먹어요.

(15)번 예문에서 B1 문장은 '-고'가 연결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지만 두 동작이 의미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A2의 질문이 이어질 수 있는 맥락임을 피험자에게 숙지시켰다. 즉, B1 발화에서 '정확히 그 순서대로'라는 의미가 주어지지 않아야 B2 발화가 이어지는 상황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다. 또한 A2 문장을 선택의문으로 하여 B2 응답의 일부분에 초점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였다. 두 문장의 피치곡선⁵⁾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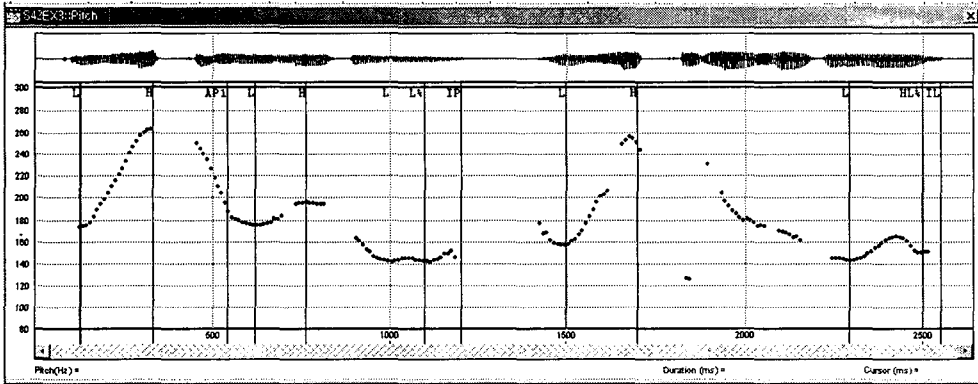


그림 4. k5a(왼쪽), k5b(오른쪽): /약 먹고 물 먹어요/

왼쪽은 연결의 의미이거나 일반 함축으로 순서의 의미로 나타날 수 있다. 오른쪽의 발화는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이 되기 위해서 'exactly be orderly'라는 특정 함축을 갖게 된다. 이 경우는 하나의 액센트구로 형성되고 있다. 녹음이 끝난 후에는 피험자에게 실험 문장의 발화 의미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 과정에서 (15)의 B1예문은 '약 먹은 다음에 물을 먹으려고 한다'는 상황에 적절하다고 답하였다. 이 말은 액센트구 형성은 일반적인 연결 의미 '-고'와 동일하지만 의미는 이미 'and then'임을 말해 준다. 그렇다면 'and'와 'and then'은 운율로서 구별하지 못한다는 설명이 된다. 그렇다면 운율구 형성에서 보이는 차이는 어떤 의미를 전달하게 되는가? 다음 절에서는 일반 함축과 특정 함축을 관찰해 본다.

5) PCQuirer에서 레이블링 층위를 나누지 못하여 성조층위와 운율구를 같이 표기하였다. 한 위치에 두 가지를 표시하다 보니 표기위치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3.2.2 GCI와 PCI의 운율구 실현

앞서 '-고'에 대한 피치 곡선을 통해 'and'와 'and then'의 의미가 구별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운율구 형성의 차이는 어떠한 의미를 부가하게 되는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실험 문장을 통해 관찰해 볼 것은 일반 함축과 특정 함축이다. 여기서 일반 함축이란 문장의 의미 내에서도 '순서적'인 의미를 말하며, 특정 함축이란 맥락상 '그 순서대로'라는 강한 의미를 나타낼 때를 말한다. 실험 예문에서는 특정 함축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두 번째 질문이 구성되었다. 다음 예문 (16)을 보자.

(16) A1: 어제는 수업시간에 뭐했니?

B1: **인형 만들고 노래 배웠어요.**

A2: 인형 만들고 노래 배웠니, 아니면 노래 배우고 인형 만들었니?

B2: **인형 만들고 노래 배웠어요.**

(16)번 예문에서 A1의 질문은 응답으로 순서의 의미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화자는 청자와 '일이 일어난 순서대로 말하라'는 원칙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B1의 응답은 순서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이때의 '-고'는 'and then'일 수도 'and'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B2의 경우는 'and then'으로만 해석된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 순서대로 일어났음을 함축하고 있다. 이 문장 역시 녹음 후에 인터뷰를 하였다. 피험자는 B1도 '인형 만들고 난 후에 노래 배웠다'는 의미에 가깝다고 설명하였다. (16)번 두 문장의 피치 곡선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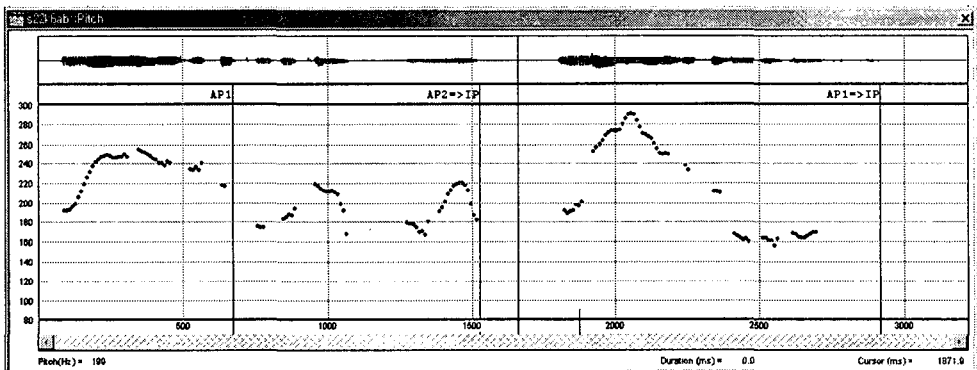


그림 5. k7a(왼쪽), k7b(오른쪽): /인형 만들고 노래 배웠어요/

이와 같이 비교해 볼 수 있는 예문은 실험 문장 중에서 모두 4 쌍이었다. 운율구 형성 결과는 다음 [표 3]에 정리하였다.

표 3. '-고'가 일반 함축의 의미일 때와 특정 함축의 의미일 때 운율구 형성 비교: I 형은 일반 함축이 예상되는 문장이고 II 형은 특정 함축의 의미가 반영되어야 하는 문장이다.

	피험자수	문장수 (k4,k5,k6,k7)	발화회수	총문장	운율구가 나뉘는 경우	운율구가 나뉘지 않는 경우
I 형	5	4	3	60	55	5
II 형	5	4	3	60	24	36

[표 3]에서 I 형은 '-고'에 일반 함축의 의미가 개입되거나 연결의 의미를 갖는 경우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동작이 연결되는 해석인 경우가 많아서 I 형은 일반함축이거나 피험자에 따라 특정 함축의 의미를 반영할 수 있다. 즉 이어지는 질문이 순서 정보를 묻고 있으나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미리 순서 의미를 강조하는 식으로 피험자가 발화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결과가 보여 주는 특징은 일반 함축일 때에는 운율구가 '-고'를 중심으로 분리된다는 사실이다. I 형에서 운율구가 나뉘지 않는 예는 4 번째 화자와 5 번째 화자에게서 일부 나타났다. 이 경우는 녹음 후에 인터뷰를 하여 피험자가 발화한 문장의 의미에 대해 확인하였다. 피험자는 인터뷰를 통해 I 형의 의미가 이미 순서대로 동작이 이루어지는 해석으로 발화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녹음을 피험자에게 청취하게 하여 의미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따라서 I 형에서 하나의 운율구 형성으로 나타난 결과는 이미 특정 함축을 포함하여 의도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발화가 '그 순서대로 정확히'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I 형 중에서 5 개의 예외는 특정함축이 되는 II 형으로 발화된 것이다. 이와 비슷한 다음 예문 (17)을 보자.

(17) A: 어제는 뭐했니?

B: 미영이 만나고 마로니에 공원에 갔었어요.

A: 미영이 만나고 나서 공원에 갔었니, 아니면 공원에 다녀와서 미나 만났니?

B: 미영이 만나고 마로니에 공원에 갔었어요.

다음 [그림 6]의 피치 곡선은 예문 (17)의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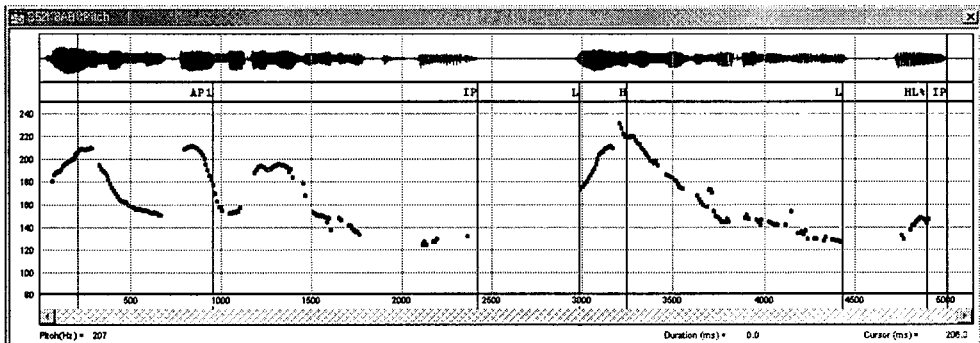


그림 6. 다섯 번째 화자의 k8a(왼쪽), k8b(오른쪽): /미영이 만나고 마로니에 공원에 갔었어요/

[그림 6]의 피치 곡선은 [표 3]에서 II형과 같은 운율구 형성에 대한 예측을 뒷받침해 준다. 이 외에도 [표 3]에서 II형의 결과는 흥미롭다. 특정 함축으로서 '-고'가 'exactly be orderly'라는 함축을 나타낼 때에는 '-고'를 중심으로 운율구가 분리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실제 발화에서는 운율구가 분리되는 예를 60 개의 발화 중에서 24 회나 보이고 있다. 그 중 한 예를 보면 다음 [그림 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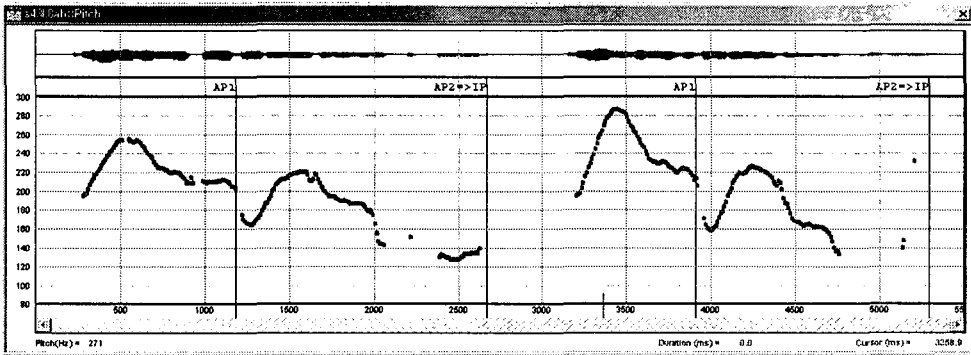


그림 7. 네 번째 화자의 k8a(왼쪽), k8b(오른쪽): /미영이 만나고 마로니에 공원에 갔었어요/

이러한 피치 곡선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고' 앞부분의 피치가 초점을 받은 것처럼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피험자들은 순서의 의미를 나타내는 데 초점 발화를 이용하여 함축을 전달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17)번 예문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질문은 '-고' 앞 부분에 초점이 들어가게 되는 의미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선택 의문문이라는 특성으로 두 대상에 초점이 부여될 수는 있으나 이것이 다시 응답에서도 초점 발화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 [그림 7]의 경우는 피험자가 자신이 해석한 내용을 광의의 초점(broad focus)를 이용하여 '-고' 앞을 강조하게 된 것으로 설명해 볼 수 있다. 또 다른 설명은 음절 수의 길이에 따른 차이이다. 예문 (17)번은 음절 수가 다른 문장보다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운율구 형성의 차이가 아니라 '-고' 앞부분에 초점을 둬으로써 순서의 선행 관계를 보여 준다고 볼 수 있다. 초점 부가로 '-고'의 특정 함축을 강조한다는 사실은 세 번째 피험자의 결과에서 특징적으로 찾아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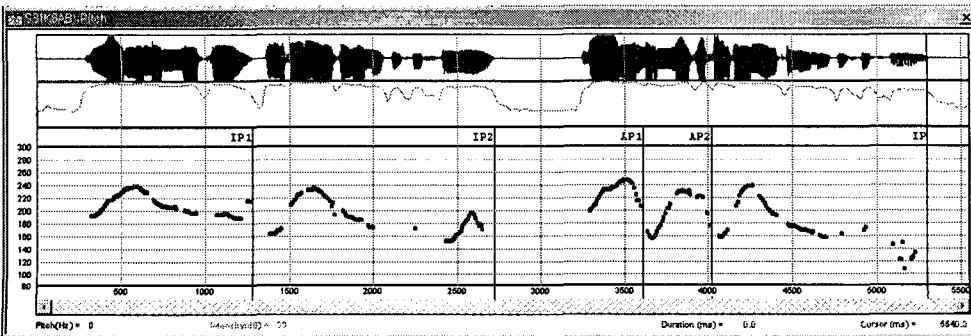


그림 8. 세 번째 화자의 k8a(왼쪽), k8b(오른쪽): /미영이 만나고 마로니에 공원에 갔었어요/

[그림 8] 오른쪽 그림에서 '-고'가 특정 함축되었을 때에는 운율구 형성에서 왼쪽과 차이를 보인다. 왼쪽 발화는 '미영이 만나고'가 하나의 액센트로 형성되었는데 오른쪽 발화에서는 '미영이'와 '만나고'가 각각 하나의 액센트구로 형성되었다. 이것은 '만나고'를 강조하면서 '-고'의 순서적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그림에서 소리의 세기를 보면 '만나고'에서 '고' 부분이 왼쪽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피험자는 '-고'의 특정 함축 의미를 음절 수가 적을 때에는 운율구로 차이를 보였고, 음절 수가 많을 때에는 '-고'와 연결되어 있는 어휘를 하나의 액센트구로 형성하면서 강조하는 방식으로 구별하였다. 녹음 후의 인터뷰에서 피험자는 '약 먹고 물 마셔요'라는 문장을 예로 들면서 만일 이 문장이 '약을 먹고 물을 마셔요'라는 것이었다면 '먹고' 부분을 강조하며 발화할 것 같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초점을 이용하여 '-고'의 순서적 의미를 강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3.2.3 '-고' vs. '-고 나서'

'-고'와 '-고 나서'의 형태를 비교하는 것은 '-고'가 '순서대로 말하라'는 일반 함축을 갖게 되면 '-고 나서'와 같이 'and then'의 의미가 되고, 동시에 들은 특정 함축인 'exactly be orderly'의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특정 함축이 운율과 관련되어 나타난다면 형태에 관계없이 두 발화는 동일한 운율 형태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예측을 보기 위하여 실험 예문 중 같은 맥락에서 '-고'로 표현되는 발화와 '-고 나서'로 표현되는 발화를 비교하였다. 실험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특정 함축을 갖는 '-고'와 '-고 나서' 운율구 형성 비교

피험자 수	문장수 (k4,k5,k6,k7,k8)	발화 회수	총문장	두 발화의 운율구 형성이 유사한 경우	서로 다른 경우
5	10	3	150	124	26

[표 4]의 결과는 '-고'와 '-고 나서'가 순서의 의미를 강조하는 특정 함축을 가질 때 운율구 형성이 거의 동일했음을 보여 준다. 여기서 예외가 되었던 26 개의 발화는 주로 (12)번 예문으로서 중간에 억양구를 넣어 발화한 예이거나, 실험자가 파악하기에 발화에서 의도된 의미를 전달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5 개였다. 이러한 발화에 대해서는 녹음 후에 피험자에게 들려주고 발화의 자연스러움에 대해 물어 보는 형식으로 확인하였다. 이 중 3 개의 발화는 피험자 스스로가 발화의 부자연스러움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5 개의 발화는 세 번째 피험자의 경우로서 '-고 나서'가 들어간 발화는 액센트구를 나누어 발화하였다. 예를 들어, '물 마시고 오이 먹었어요'에서는 하나의 액센트구를 형성하였고, '물 마시고 나서'의 경우는 '나서' 부분을 강조하여 독립된 액센트구를 형성하는 식으로 발화하였다. 여기서도 초점 발화를 이용하여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예를 찾아볼 수 있었다.

아래 예문 (18)은 '-고'와 '-고 나서'가 특정 함축을 가지며 발화된 것이다. B3의 발화는 이어서 발화한 것이 아니고, 별도의 실험 세트에서 발화하게 하여 녹음하였다.

- (18) A1: 의사가 지시한 대로 했니?
 B1: 네, 물도 마시고 오이도 먹었어요.
 A2: 너 혹시 오이 먹고 물 마신 거 아니니?
 B2: 아니에요, 물 마시고 오이 먹었어요.
 (B3: 아니에요, 물 마시고 나서 오이 먹었어요.)

예문 (18)번의 피치 곡선은 다음 [그림 9]-[그림 10]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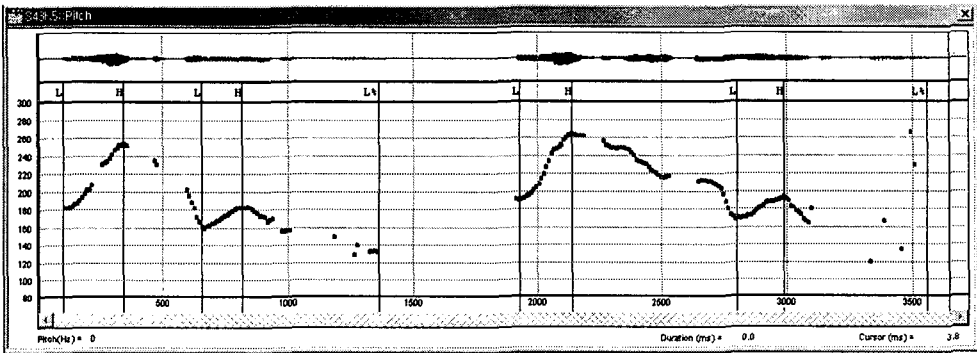


그림 9. 왼쪽 피치곡선: /물 마시고 오이 먹었어요/, 오른쪽: /물 마시고 나서 오이 먹었어요/ (네 번째 피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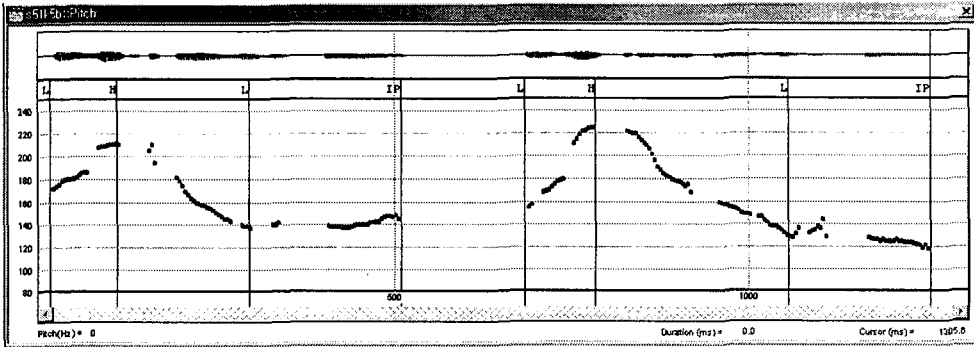


그림 10. 왼쪽 피치곡선: /물 마시고 오이 먹었어요/, 오른쪽: /물 마시고 나서 오이 먹었어요/ (다섯 번째 피험자)

[그림 9]와 [그림 10]은 같은 발화에 대한 서로 다른 피험자의 피치 곡선이다. 각각의 그림에서는 '-고'와 '-고 나서'가 포함되면서 특정 함축의 의미를 포함하는 발화가 나타나 있다. 우선, [그림 10]에서 보이는 전체적인 피치 곡선이 왼쪽과 오른쪽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차이를 보이는 것은 오른쪽 피치 곡선에는 음절 수가 2 개 첨가되어 있기 때문에 '물 마시고 나서'에 해당하는 부분이 좀더 지속시간이 길 뿐이다. [그림 9]와 [그림 10]은 서로 다른 피험자이기 때문에 피치 곡선상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각각의 좌우 그림은 서로 같은 패턴을 보인다. 이로써 '-고'와 '-고 나서'에 나타나고 있는 특정 함축이 'exactly be orderly'로 같

은 경우, 특정 함축이 나타내는 운율 특정도 같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3.3 정리

실험을 통해 살펴본 것은 ‘-고’가 어떻게 ‘and’와 ‘and then’의 의미를 갖게 되는가 하는 점과 일반 함축과 특정 함축이 어떻게 운율과 관계하는가이다. 화용론적인 논의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고’가 일반 함축으로서 ‘and then’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며, 운율의 특징으로 알 수 있었던 것은 ‘-고’의 연결 의미가 일반 함축을 가진 후 운율구 형성을 통해 ‘and then’의 의미가 ‘exactly be orderly’로 특정 함축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정 함축은 ‘-고’와 ‘-고 나서’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운율과 특정 함축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특정 함축은 초점을 통해서도 운율과 관련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본 논문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못하였다. 이 점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발전시켜 볼 필요가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연결어미 ‘-고’에 대한 중의적 의미를 어휘 형태적 중의성이 아니라 일반 함축과 운율을 통한 특정 함축에 의한 해석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즉,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고’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 일반 함축 의미와 특정 함축 의미가 ‘and’와 ‘and then’의 의미를 구별하게 한 것이다. 특히, 특정 함축의 의미는 운율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실험의 결과는 운율구 형성의 차이가 함축의 차이를 나타내는 데 중요한 단서임을 뒷받침해 주었다. 그리고 한국어 연결 어미 ‘-고’에서 운율구 형성의 차이는 이러한 특정 함축을 이끌어 내는 유도자(trigger)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을 밝혔다. 즉, 화자는 함축하는 의미를 운율을 통해 전달하고, 청자는 이러한 운율 특징으로부터 함축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and’의 의미에 대한 Grice(1973,1981)와 Levinson(1983)의 함축 이론을 바탕으로 잘 설명할 수 있었다.

한국어에서 연결 어미 ‘-고’가 갖는 의미와 운율의 관계는 영어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는 현상이다. 운율이 대화상의 함축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은 개별 언어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라기보다 언어 보편적으로 작용하는 체계라고 볼 수 있다. Levinson(1983)은 특정 함축을 맥락에 의해 추론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정 함축이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추론을 야기시키는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였다. ‘무언가 함축된 것이 있을 때 추론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추론을 야기시키고 어떻게 함축을 해석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의미 이론에서 다루고 있는 자료들은 실제로 음성 언어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음성 언어가 갖는 특징과 운율 특징이 추론을 유도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한다면 실제 발화에서 문장이 의미를 전달하는 내용을 자세하게 다룰 수 없다. 언어는 문자 언어이든 음성 언어이든 그 특징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때 실제 일어나는 의미 관계를 풍부하게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범모, 이민행, 최재웅 외. 1999. *형식의미론과 한국어 의미 기술*, 한신문화사.
- 이정민, 배영남. 1990. *언어학사전*. 박영사.
- 이성범. 1996. *화용론*. 한신문화사.
- 장석진. 1985. *화용론연구*. 탑출판사.
- Grice, H. Paul. 1973. *Probability, defeasibility and mood operators*. In Levinson (1983: 97-166)
- Grice, H. Paul. 1981. *Presupposition and conversational implicature*. In Levinson (1983: 97-166)
- Mey, L. Jacob. 1993. *Pragmatics*. Blackwell Publishers.
- Jun, Sun-Ah. 1993. *The Phonetics and Phonology of Korean Prosody*. PhD.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 Levinson, C. Stephen. 1983. *Pragma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ard, G. & J. Hirschberg. 1985. "Implicating uncertainty: the pragmatics of fall-rise intonation." *Language*, 61, 271-311.

접수일자: 2001. 10. 31.

게재결정: 2001. 12. 9.

▲ 김미란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1 (우: 136-701)

고려대학교 언어과학과 박사과정

E-mail: mirany@korea.ac.kr